

단편서사시론

최 명 표*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임화의 비평적 대응 |
| 2. 단편서사시의 출현 | 5. 맺음말 |
| 3. 단편서사시의 옹호와 비판 | |

1. 머리말

카프는 1930년대에 접어들어 점차 악화되는 객관적 정세 속에서 문학 운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카프 비평은 리얼리즘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으며, 문학의 본질적 차원인 내용과 형식 논의를 한층 심화시켰다. 카프의 소장파들은 조직의 강화와 노선의 재정립을 위해 어념적 우위를 앞세우면서 불세비키화 논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카프 조직의 존립을 위협하는 객관적 정세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문학의 정치성을 실천하는데 적합한 대중적인 문학 양식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 카프 조직원들이 논의했던 대중적 문학 양식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서정 양식은 단편서사시에 관한 논의이다. 그것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수 있다. 시인들은 점차 악화되는 일제의 사상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탄압으로 이전의 단시형 서정시로는 식민지 현실을 담아낼 수 없게 되자,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양식을 탐구하게 되었다.¹⁾ 사회 현실에 대항하기 위한 외적 요인과 달리, 문학 내적 요인은 범문단적 경향과 카프의 운동 방향 그리고 작품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문단에는 서간체가 소설의 주요 형식으로 자리잡았다. 서간체 소설은 자아에 대한 반성적 탐구 형식이라는 점에서 자기고백적인 시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시 양식에서는 주제상으로 전대의 작품에서 현저히 나타났던 감상적 낭만주의를 배격하면서 현실적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고, 형태상으로는 전대부터 나타났던 장시화 경향이 하나의 양식으로 정착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단편서사시는 전대에 배태된 시 양식의 정착화 움직임을 계승하여, 이전의 시 양식에서 문제시되었던 개인의 정서적 과잉 현상을 배제하고, 사건적 요소를 강조하여 문학의 대중화 수단으로 출발했다.

단편서사시에 관한 비평적 논의는 문학의 대중화와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김기진은 1930년을 전후하여 문학의 대중화와 관련된 「문예시대관 단편」(『조선일보』, 1928. 11. 9 - 11. 20), 「변증적 사실주의」(『동아일보』, 1929. 2. 25 - 3. 7), 「대중소설론」(『동아일보』, 1929. 4. 14 - 4. 20), 「프로시가의 대중화」(『문예공론』, 1929. 5.), 「단편서사시의 길로」(『조선문예』, 1929. 5.), 「예술의 대중화에 대하여」(『조선일보』, 1930. 1. 1 - 1. 14) 등²⁾을 발표하였다. 그의 비평적 제안에 의해 촉발된 단편서사시 논쟁은 카프 소장파의 주목을 받으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논쟁은 카프의 조직 개편을 포함하여 리얼리즘시론의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점차 강화되는 일제의 정치적 통제 조치에 대항하여 문학의 본질적 국면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시론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글의 목적은 1930년을 전후하여 프로 비평의 한 국면을 차지하였던 이른

1) 시인이 선택한 계급 이데올로기가 양식적 탐구와 대응관계에 놓인 사례는 이상화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론고』, 아세아문화사, 1990, 57-62쪽.)

2) 김기진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문학의 대중화 논쟁에 대해서는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2, 72-80쪽 참조.

바 단편서사시 논쟁의 전개 양상을 비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근대 리얼리즘 시론의 발전 과정을 살피려는 데 있다.

2. 단편서사시의 출현

단편서사시를 작품으로 실천한 것은 임화였다. 그가 발표했던 「담—1927」(『예술운동』 창간호, 1927. 11.)은 이전의 시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습작풍의 다다이즘 계열의 시와는 다른 성향의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프롤레타리아 동지의 피살 현장을 총 66행으로 전경화하고, 과격한 구호를 도입하여 적대감 고취 의도를 충분히 살렸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시적 소재로 다루면서 주제 의식의 과잉 현상을 드러냈지만, 예전의 작품에 비해 안정적인 시형이었다. 그가 이 작품에서 일정한 즐거리를 가진 장시의 구도를 통해 형식미학적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작품에서 단편서사시의 징후를 포착한 것은 무리이다.³⁾ 그보다는 다음 해에 발표한 「젊은 순라의 편지」를 단편서사시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작품은 「담—1927」과 「우리 오빠와 화로」의 중간 시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특징적 요소들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전자의 요소로는 국외의 프롤레타리아 운동 사건을 소재로 취급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요소로는 서간체 형식을 빌어 시적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편서사시로 나아가는 기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⁴⁾

사랑하는 형님!

어저께 우리는 월력에다 ××을 싸서 버리고 進×을 시작했소.

그리하여 삽과 삼태기를 들고 우리는 ××에로 나아가우.

3) 이 작품에서 단편 서사시의 징후를 포착한 것은 김윤식이다.(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90, 120쪽.)

4) 이 글에서는 단편서사시의 양식적 성격을 소재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전자의 측면은 프롤레타리아적 사건의 시적 수용으로, 후자의 측면은 서간체 형식의 활용으로 국한한다.

용감하지 않소 벌써 지구의 반은 ××의 행렬이 점령하고 있소 지구는 밤이요.

얼마나 많은 동지가 어둠 속에서 죽어가겠소 이죽도 붙은 춤구려 한점 웃으로는 견디기가 어렵구려

허지탄 형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림자를 보아주구려.

×體를 넘고 ×河를 건느는 우리들의 그림자를 보아주구려.

요전에 우리는 柏林 교외를 지나다 봄풀이 싹이 돋기도 전 가난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여운 계집애 ××의 무덤에다 꽃뭉치를 안겨주고 마음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는 독일의 푸로레타리아의 얼굴을 보고 왔소.

그때 나는 나의 옆에 同×를 ×이러 중국을 갔었다는 늙은 同×의 슬피 우는 얼굴을 보고 왔소 나는 가마나히 눈물을 내 눈에서 집어버렸고 참기가 어려움되다.

- 임화, 「젊은 순라의 편지」⁵⁾

이 시의 화자는 민족해방운동에 복무하는 젊은 순라이며, 청자에게 국내외의 운동 상황을 편지 형식을 빌어 보고하고 있다. 화자는 시의 전체 구조를 이끌어 가면서, 그간의 ‘나’의 행적을 서간체 형식을 빌어 ‘사랑하는 형님에게’ 정중한 태도로 보고하고 있다. 시적 화자가 시의 서술구조를 이끌어 가는 방식은 시사적으로 1920년대 이후의 리얼리즘시에서 산견된다. 화자에 의한 시적 구조의 진행은 필연적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시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을 띤다. 화자가 처한 상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언어의 능동적 기능을 중시하여 리얼리즘시에서는 의사소통의 극점에 위치한 수신자를 지향하게 된다.⁶⁾ 하지만 이 작품의 언어 전략은 수신자인 청자를 지향한다기보다는 화자의 일방적인 서술을 위해 채택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럼으로써 사건의 객관적인 보고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에, 독자들의 시적 동조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은 임화가 아직 서간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화자와 청자에게 역할을 적절하게 부여하지 못한데서 파생했다. 시의 독자인 수신자는 서간의 엿보기와 훑쳐보기라는 이중성에 기초하여 발신자의 역할 수행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시인의 건조한 사건 서술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불충분하다.

5) 임화, 「젊은 순라의 편지」, 『조선지광』, 1928.4.

6) R. 아콕슨(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학지성사, 1989, 55-61쪽.

한 편의 시 속에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서간체로 보고하는 형식은, 이후 발표된 단편서사시 계열의 작품군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임화는 이후에 「네 거리의 순이」(『조선지광』, 1929. 1.)를 비롯하여, 「우리 오빠와 화로」(『조선지광』, 1929. 2.), 「어머니」(『조선지광』, 1929. 4.), 「봄이 오는구나」(『조선문예』, 1929. 5.), 「오늘밤 아버지는 퍼렁이불을 덮고」(『제일선』, 1933. 3.) 등의 단편서사시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우리 오빠와 화로」는 “한국의 근대시사에서 리얼리즘시론의 단초를 열었다”⁷⁾고 평가되는 작품이다. 물론 이 정의는 리얼리즘시론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야 정당하고, 리얼리즘 시론의 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작품을 중심으로 단편서사시 논쟁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논쟁의 전개 양상과 리얼리즘 시론의 발전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분석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든 오빠의 거북紋이 질화
로가 깨여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조그만 기수타 부르는 永男이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로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독기 속에다
어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紋이 화로가 깨여졌어요

그리하여 지금은 화젯가락만이 불상한 永男이하구 저하구치럼
또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가 나란히 걸렸
어요

오빠...

저는요 저는요 알았어요
웨—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들어가실 그날밤에
연거피 말는 捲煙을 세 개식이나 피우시고 계셨는지
저는요 잘 알았어요 오빠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짐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시며
... 네 몸에선 누에 똥내가 나지 않니—하시든 세상에 위대하고 용감한

7) 윤영천, 「한국 '리얼리즘 시론'의 역사적 전개와 지향」, 『민족문학사연구』 제2호, 1992, 131쪽.

우리 오빠가 왜 그날만
말 한마디 없이 담배 연기로 방속을 미워버리시는 우리 우리 용감한 오
빠의 마음을 저는 잘 알았어요
천장을 향하여 기억올라가든 외줄기 담배 연기 속에서—오빠의 강철 가
슴 속에 백한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하여 제가 永男이에 버선 하나도 채 못 기었을 동안에
門지방을 때리는 쇠소리 바루르 밟는 거치른 구두소리와 함께—가버리지
안으셨어요

-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⁸⁾

이 작품은 등장인물과 사건을 도입하여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누이동생이 오빠에게 보내는 서간체 형식의 가족 내적 담론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담론 방식은 필연적으로 폐쇄적인 소통구조를 지향하게 된다. 서간체 형식은 언어의 능동적 기능을 중시하여 수신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점은 화자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감상성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원인이 되었다. 화자는 시인의 주관보다는 시적 상황에 알맞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 속의 화자는 감상성 시비를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품 속에서 서술구조를 주도하는 화자는 나/누이동생이다. 그녀는 여성적인 여린 목소리와 투사적인 목소리를 동시에 가진 여동생이다. 섬세한 여성적인 목소리는 시적/현실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강인한 투사적인 목소리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실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이중적인 목소리는 4연에 등장하는 오빠의 목소리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작품의 전체적인 어조를 다성적인 대화 양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시는 다성적인 대화를 지향하므로, 대화 체계는 '나/나'의 방식보다는 '나/남'의 방식에 가깝다.⁹⁾ 시의 화자가 시인과 전혀 다른 인물이므로, 나/화자가 남/오빠에게 가정 형편을 보

8)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 『조선지광』, 1929.2.

9) 시의 대화체계를 나(I)/나(I), 나(I)/남(I, You, He, She, They)의 방식으로 파악한 연구자는 Yu. 로트만이다. 그에 의하면, 나/나의 대화체계는 독백체의 대화 방식이며, 나/남의 대화체계는 일반적인 대화방식이다. 그의 이론을 원용하여 작품 분석을 시도한 사례는 정효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정효구, 『현대시와 기호학』, 느티나무, 1989, 7-209쪽 참조)

고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다. 나(누이동생)/남(오빠)의 사이에 놓인 공간적인 긴장 관계는, 화자가 거의 매연마다 반복하여 부르는 ‘우리’라는 동지적 연대관계로 전환한다. ‘나’와 ‘오빠’가 ‘우리’가 됨으로써, 연약한 ‘여동생’은 강인한 ‘투사’로서의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그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시적 상황과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개방성에서 비롯되었다.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을 현실적 상황으로 변환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이 시의 화법은 대화 체계를 추구하는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나/ 화자와 남/ 청자와의 관계는 화자의 오빠에 대한 경어형 ‘~서요’체의 사용으로 드러난다. 시의 화법은 화자의 목소리를 결정하면서 대화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인데, 이 작품에서는 화자와 청자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효과를 가져온다.¹⁰⁾ 그것은 선전 선동을 목적으로 삼는 프롤레타리아시의 낭독성을 강화하여, 운동 전선의 확대와 대상/ 독자의 의식화를 가져오게 된다. 시의 낭독은 특정한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야기의 극적 상황은 낭독/ 전달 가능한 구어체 화법을 요구한다. 그것은 객관적 현실처럼 존재하는 이야기의 객관성을 제고하여 낭독의 존재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시킨다.

이 시의 소재는 동생이 사온 ‘거북紋이 질화로’가 깨어진 평범한 일상적 사건이다. 그런데 시인은 단순한 일상적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프롤레타리아적 사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독자의 현실적/ 시적 참여를 유발하고 있다. 이것은 서간체를 도입한 의도와 상관되는데, 서간체가 생리적으로 자기고백적인 일상적 양식이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서간은 발신자가 특정한 수취인에게 양자가 관련되는 사연을 주고받는 주관적인 글쓰기 방식이다. 아울러 독자로 하여금 특정인물인 화자와 청자의 대화 내용을 활자화된 언어를 통해 엿보게 해준다. 시인은 사연의 엿보기/ 엿듣기에 독자의 호기심을 집중케 하는 서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독자/ 프롤레타리아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는 시적 성취를 가져왔다.¹¹⁾ 내밀한 관계의 대화 내용을 서간체 형식을 빌어 공개함으로써, 가정적

10) “모든 어조는 두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나는 동조자 혹은 증인으로서는 청취자를 향한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생생한 제3의 참여자로서의 연술을 향한 방향이다. 어조는 이 제3의 참여자를 비난하거나 칭찬하며 깎아내리거나 격찬한다.”(T. 토도로프, 최현무 옮김), 『바흐핀: 문학사회학과 대화 이론』, 까치, 1988, 76쪽.)

차원의 범박한 일상사를 공개적인 운동적 차원의 사건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 작품에서 도입한 서간체 형식은 사연/이야기의 개방적인 성격 때문에, 필연적으로 장르의 개방 효과를 가져왔고 장르적 속성을 애매하게 만들었다. 이 작품에서 채택한 '나/남'의 대화체계가 서사 양식과 극 양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나/나'의 대화체계는 서정 양식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단편서사시의 장르상의 혼효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서간은 양자간 친밀도에 따라 사연/이야기의 질량이 달라진다. 담론 방식은 가족 내적 담론이 주를 이루며, 쌍방향의 의사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의사전달체계를 중시하였다.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폐쇄적인 담론 방식은 형식보다는 전달되는 내용을 강조하게 되었고, 혈연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상성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서간은 수취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청자 지향적인 소통방식으로, 예로부터 종교적 찬가나 정치적 투쟁가 등에서 널리 사용되었다.¹²⁾ 또 발신자의 이야기/사건의 구술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다면적이면서 감정이입적이고, 참여적이며 상황의존적인 특성을 갖는다.¹³⁾ 그러므로 이 작품이 서간체를 동원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 뒤,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양식적 특성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문학 대중화론과 관련하여 비평적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3. 단편서사시의 옹호와 비판

김기진의 「단편서사시의 길로」는 '우리 시의 양식 문제에 대하여' 쓴 글이다. 이 글은 시 양식의 모색과 더불어 시의 대중화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전범이라고 여긴 임화의 시 「우리 오빠와 화로」를 높이 평가한 글이다.

11) 독자의 엿보에 대해서는 R. 솔즈(유재천 옮김), 『기호학과 해석』, 현대문학사, 1988, 49쪽.

12) D. 람핑(장영태 옮김), 『서정시: 이론과 역사』, 문학과지성사, 1994, 183쪽.

13) 구술적인 사고와 표현들의 특징에 관해서는 W.T. 웅(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60-92쪽 참조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시인은 무엇에 주의하여야 할까?

첫째 프롤레타리아 시인은 그 소재가 사건적 소설적인데 주의해야 한다. 그리하여 될 수 있는대로 그 소재의 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추려가 지고 적당하게 압축하여 사건의 내용과 사건을 중심으로 한 분위기는 극히 인상적으로 선명·간결하게 만들기에 힘을 것이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소설과 같이 길어질 것은 물론이요 시로서의 맛이 없다. 시로서의 맛이란 설명의 인상적·암시적 비약에, 즉 행과 행간의 정서의 비약에 대부분 있는 까닭이다.(………)

둘째 문장은 소설적으로 느리고 둔하여도 못쓰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연마 조각하여 깊이 아로새길 필요가 없다. 무슨 까닭이나 하면 프롤레타리아는 교양이 깊지 못하여 따라서 지식계급이나 유산계급의 인사와 같이 세련된 말과 친하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들의 시는 그들의 용어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요건이다. 그런데 그들의 용어는 대개 소박하고 생경하고 '원 그대로의 말'인 곳에 차라리 屈強美가 있으므로 시인은 그들의 말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낭독에 편하도록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리듬의 창조이어야만 할 것이라는 말이다.¹⁴⁾

이 글에서 김기진은 첫째, 프롤레타리아 시인을 향해 '시의 소재를 사건적·소설적인데서 찾아야 하며, 프롤레타리아 의식과 생활을 실제 재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시의 소재적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그들의 의식과 생활에서 소재를 발굴하되 그것은 사건적이고 소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 속에 소설적 사건을 도입할 것을 역설했는데, 실제로 든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는 사건이 현실적이며 실제적이어서 '한 개의 통일적 정서를 전파'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가 사건의 본질적 속성, 곧 구경꾼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그의 관심을 사건의 중심부로 이동시키는 힘을 파악한 것이다. 그는 시의 맛을 '설명적·인상적·암시적 비약, 즉 행과 행의 정서적 비약'에서 찾으면서, 사건이 시적인 성격을 갖추게 되는 것을 기법적 측면인 '인상적·암시적 비약'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시의 성격은 내용이 형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의 시 장르 인식은 빈약하였다. 또 이것은 그가 앞서 발표한 글에서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프롤레타리아 소설과 대중 소설을 이원화했듯이, 시 장르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내세우지 못한 채 소박한 인식의 일단을 반복하

14) 김기진, 「단편서사시의 길로」, 『조선문예』, 1929.5.

여 표출한 것이다. 그는 반대론자들이 자신의 논리를 반박하자 그 문제점을 세밀히 비판하지 못한 채 침묵함으로써, 단편서사시 양식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확장시키지 못했다.

둘째, 그는 언어적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 시가 ‘그들의 용어’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프롤레타리아는 교양이 깊지 못하여 세련된 말과 친하지 못하므로, 소설적으로 느리고 둔하여도 못쓰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연마 조각하여 깊이 아로새길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용어는 대개 소박하고 생경하고 ‘된 그대로의 말’인 곳에 차라리 꿀강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동 텍스트, 즉 피지배자의 대화를 조장해서 논지를 제공하고, 계속 추구하도록 하는 시는 노동자들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¹⁵⁾는 점에서, 그의 논리는 단편서사시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상대적 우위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후일에 반대론자들로부터 계급 의식의 불철저성을 비판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 그가 시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리듬을 강조한 이면에는 이전에 발표한 글에 대해 최서해가 제기했던 반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⁶⁾ 김기진이 언급한 리듬은 ‘노동자들의 낭독’에 편하도록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는 시의 주된 수용자인 노동자들에게 선전 선동을 강화하면서,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어의 평이성과 시의 리듬효과를 거론한 것이다.

한편 김기진이 시 양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과거에 『백조』파라는 자신의 문학적 출발점을 의식한 시 양식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다¹⁷⁾는 의견은 다분히 심정적인 추단일 뿐이다. 그는 이 시기에 나름대로 시 양식뿐만 아니라, 시와 소설을 비롯한 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할 양식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는 「문예시대관 단편—통속소설 소고」(『조선일보』, 1928. 11. 9 - 11. 20)라는 글에서 소설의 대중화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소설의 독자를 ‘보통 독자’와 ‘교양있는 독자’로 이분하면서 객관적 정세가 불리할 경우 통속소설의 길로 나아가야 한

15) C. 브레트하우어, 「무엇을 위한 선동 텍스트인가」, 신상전·A. J. 웨크베커 엮음, 『독일의 정치시』, 제3문화사, 1990, 73쪽.

16) 최서해는 김기진의 「대중소설론」이 발표되자 그의 논리에 대체적으로 동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소설이 갖추어야 할 요소의 하나로 ‘프롤레타리아의 리듬’을 제안하였다.(최서해, 『열일고어』, 『동아일보』, 1929. 7. 12-7. 24)

17) 김용직, 『입화문학연구』, 세계사, 1991, 40쪽.

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그는 문학의 특정 양식에 관심을 기울였다기보다는, 일제의 점령과 같은 당면한 현실적 제약 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주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단편서사시의 길로」에 앞서 발표했던 「시감이편」(『조선지광』, 1927.8.)에서, 조명희의 「낙동강」이 “1920년 이후 조선 대중의 거짓없는 인생 기록”이므로, 조명희야말로 “제2기에 선편을 던진 우리들의 작가”라고 평가했었다. 그는 이 작품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중화 전략과 관련하여 소설적 양식의 전형을 발견했던 것이다. 또 그는 「회관 앞에서」(『삼천리』, 1935.1.)를 발표하여 단편서사시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작품은 어린 소녀가 죽은 오빠에게 쓴 서간체 형식의 단편서사시로, 오빠가 세웠던 청년회관이 헐리게 되자 그 뜻을 계승하여 재건하겠다는 결의를 시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그가 박영희와 벌였던 소위 ‘내용/형식 논쟁’에서 자질을 절취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형식 우위의 논리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과 동떨어 놓인다. 그는 단편서사시를 둘러싸고 자신을 압박하는 소장파들의 집단적인 반격 태세에 무언으로 항의했으며, 그에 대한 반증적 실례로 논쟁이 소진된 뒤에 이 작품을 선보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건대, 그가 시인 출신이므로 소설 양식보다는 시 양식에 관심을 더 가졌다는 진술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당시의 시대적 형편을 고려하면, 김기진의 단편서사시론은 유력한 현실적 제안이었다. 객관적인 정세의 악화로 인해 공식적인 기관지를 가질 수 없었고, 일제의 점령을 피할 수 없는 카프의 처지에서 보면 양자를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단편서사시론에 대한 비판은 국외의 카프 조직원들 사이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카프 동경지부에는 제3전선파로 제1차 방향전환을 주도하였던 이복만을 비롯하여 김두용, 임화, 권환, 안막, 김남천 등이 고경홍의 지도아래 활동하고 있었다. 고경홍은 한위전 등의 지시로 카프 동경지부를 무산자사로 개편하고,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인 「조선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결의」에 의해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위당의 볼셰비키화’를 주장하면서, 당의 이념을 홍보하기 위해 기관지인 『예술운동』의 제호를 『무산자』로 변경하여 발행하는 등 합법

적인 출판 활동을 강화하였다.

김기진의 글에 대한 비판은 김두용에 의해 주도되고 안막, 권환 등이 뒤따른 형국으로 조직적인 반론이었다.¹⁸⁾ 김기진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일인에 대한 만인의 싸움' 양상을 띠면서, 마치 예정된 수순을 밟듯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카프의 제2차 방향전환인 예술운동의 불세비키화를 주도하기에 앞서, 대중적 논객이었던 김기진을 과녁으로 삼았던 것이다.¹⁹⁾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우리 오빠와 화로'보다 앞서 발표되었고 감상성의 측면에서 이에 못지 않은 '네 거리의 순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카프 동경지부의 조직원을 중심으로 한 비판의 대오에서는, 그가 배척의 대상인 명망가일 뿐이었다. 그들은 김기진을 상대로 문학운동의 대중화 전략을 논의하면서도, 효과적인 예술 양식보다는 사상의 우위성 확보를 위한 논쟁으로 일관하였다.

김두용은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무산자』 제2호, 1929.7.)에서 당시의 국내 문단을 개관하면서 '우리의 선동, 선전을 계급적 무기로 하는 프로문학에 대립하여 이 선동, 선전을 적극적으로 압살하려는 반동 문사 등이 대두'하는 것을 비판하고, 『문예공론』과 『조선문예』를 대표적인 기관지로 꼽았다. 그는 '프로 시인의 할 주의를 시인이 참으로 프로 예술에게 부과된 계급적 임무'의 달성 여부, 곧 마르크스주의를 얼마나 투철하게 선전·선동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김기진이 시로서의 '맛'을 운위하며 '반동문사'로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시의 선전·선동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조적인 비판을 시도했던 경직된 문학관은 카프 동경지부의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들과 경성본부 간의 변별적 자질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였다. 그는 김기진의 글을 비판하면서 박영희, 윤기정, 이기영, 송영, 최서해, 박

18)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190-230쪽.

19) 1929년 7월 코민테른에서는 '사회 파시즘론'을 정식화하였다. '사회 파시즘론'은 부르조아 국가 기구에 편입된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1929년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의 격동 중에 독점 자본에 완전히 유착하여, 프롤레타리아에 적대적인 파시즘의 일익이 되었다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사회 민주주의 지도부에 공격을 집중하여 공산주의의 지도 아래, 노동자 계급의 다수를 획득한다는 전술적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것이 카프 문학의 불세비키화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다.(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57쪽.)

팔양, 임화, 김창술, 조명희 등을 소부르조아 문사로 가름하여 배격하였다. 그가 언급한 인물들이 대부분 경성본부의 주도적 인물인데 비해, 예외적으로 임화만 동경지부 소속이어서 앞으로의 이론 투쟁이 그를 발판으로 전개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안막은 「맑스주의 예술비평의 기준」(『중외일보』, 1930.5.4)에서 국내 문단이 '맑스주의의 공공연한 왜곡 수정 속류'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임화의 시와 '그것을 모방한 군소시인들의 허다한 시'를 비판하였다. 그는 시 속의 '센티멘탈리즘'과 '로맨티즘'을 타기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두 가지 요소를 '뿌떠뿌떠적 생활 감정'을 가진 '소부르조아적인 비평'을 형성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들 요소는 소시민적인 속성인데, 임화와 군소 시인이나 김기진이 소시민적 생활을 청산하고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더욱 강고해지는 식민지 지배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작방법론으로 제안된 단편서사시의 논의 배경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것이다. 그는 '예술비평을 불세비키화'하려는 자신의 논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시의 이지·프로를 통한 조직의 재정비를 강조하는데 치중하였다. 결국 그는 시 양식의 대중화 전략보다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에서 '피스코 이데올로기의 유산'을 배격하는데 대부분의 논지를 할애했던 셈이었다. 그는 「동산 위에 서서」(『조선일보』, 1930. 11. 9)라는 작품에서 단편서사시 양식을 차용함으로써, 시 양식의 효용성에는 동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권환은 「시평과 시론」(『대조』, 1930. 6.)에서 김기진을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 다른 논자들에게 비해 창작방법론에 비중을 두었다. 그가 '서사인가 아닌가 보다도 어떠한 서사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김두용이 앞서 인용한 글에서 "예술의 내용과 형식은 무엇을 썼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썼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썼는가!'에 있다"고 발언한 맥락과 동일하다. 또 그가 아무리 '아지·프로할 만한 서사이라도 그 표현방식의 여하에 의하여' 효과를 좌우한다고 본 것은 「이 꽃이 되다니」(『무산자』 제2호, 1929. 7.)라는 작품에서 동일한 양식을 시도한 것과 맞물려 있다. 이 작품이 앞서 언급한 김두용의 비판과 동일한 잡지에 게재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단편서사시의 양식적 측면은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이후 그의 시에서 현저한 관념 편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를 읽는 대중에게 ‘췌치멘탈한 헐가의 동정심’만 부추기는 감상성은 당연히 배제의 대상이었다. 그는 단편서사시의 표현방식을 거론하면서 시의 본질적 측면을 언급했지만, 작품상의 성공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주장에 머물고 말았다. 오히려 그는 단편서사시를 둘러싼 논의가 카프의 문학적 역량 구축보다는,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하였다.²⁰⁾

안막과 권환의 글은 시에 나타난 감상성의 역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됨으로써, 임화로 하여금 동일한 오류에 빠지게 했다. 이들은 시적 정서와 감상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시작 과정에서 소위 ‘뻑다귀시’의 창작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점은 나중에 카프 문학의 관념화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였고, 단편서사시의 양식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양식이 “프로예술의 참된 방향성의 모색이면서 대중화론을 겸할 수 있는 가능성”²¹⁾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평적 논의의 심화보다는 이념 투쟁을 위한 조직원들의 결속과 운동 국면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4. 임화의 비평적 대응

단편 서사시 논쟁이 전개될 당시 카프 동경지부에서는 국내의 조직을 접수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다. 임화의 「시인이여! 일보 전진하자!」(『조선지광』, 1930. 6.)는 권환의 「평범하고도 긴급한 문제」(『중외일보』, 1930. 4. 10 - 4. 18)와 안막의 「맑스주의 예술비평의 기준」(『중외일보』, 1930. 4. 19 - 5. 30)에 뒤이어 발표된 것이다. 세 사람이 모두 무산자사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학습한 뒤 귀국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세 편의 글이 연이어 발표된 사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²²⁾

20)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222쪽.

21)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174쪽.

22) 이들이 한꺼번에 카프의 조직 문제를 거론하게 된 이면에는 세 가지 의도가 숨어 있다. 첫째, 속칭 ML당 사건으로 카프의 이념적 지도자인 김복진이 검거(1929.7.)되면서 겪게 된 카프 조직원들의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여 조직을 보호

단편서사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은 임화의 자기비판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그의 글은 자신의 작품을 둘러싸고 전개되던 논쟁을 서둘러 봉합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는 글의 서두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명료하게 발언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나 공인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될 한 개의 딜레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을 중심으로 한…… 예술운동 자체의 주도적 세력의 현저한 微力化가 그 가장 큰 특징이며 그와 상대적으로 대두하는 모든 형태, 각양의 性象을 가진 일체의 반동적 경향이 공연한 세력화와 그의 지배적 층의 세세력과의 합류와 協作에서 더 한층(반동적 세력의 강화) 확대의 면전에 당면한 자신을 발견한다.²³⁾

임화가 인식하는 현단계는 카프 조직상의 위기 상황이고 반동적인 경향이 점차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카프 조직원들은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글이 발표될 무렵의 국내 정세는, 카프 개성지부에서 소위 『군기』 사건이 발발하기 직전이어서 조직 와해의 조짐이 나타나고, 일제는 카프의 제1차 검거사건을 조성하는 등 직접적인 탄압 국면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객관적 정세에 비추어 그의 자기비판적 글쓰기는 단순히 김기진의 글에 대한 반론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로서는 당대 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의 장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한 단편서사시였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집단의 논리에 밀리면서 비평적 글쓰기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의 글쓰기는 일본 체류 중 학습한 이념의 깊이를 토대로, 당대의 대중적인 비평가를 향한 이념적 도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곧, 김기진의 글이 발표된 지 1년쯤 경과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일본 체험 결과에 대한 비평가로서의 효용성을 인정받게 된 셈이었다. 그의 메타비평적 글쓰기는

하려는 것이다. 둘째, 국내 공산주의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면서, 카프 조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산주의 운동 전선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셋째, 김복진의 검거를 기회로 그의 동생이자 카프의 대중적인 현실론자인 김기진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카프 운동의 이론적 방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임화가 자기비판이라는 문학적 모험을 감행하면서 조직의 전위로 활약하게 된 것이다.

23) 임화, 「시인이여! 일보 전진하자!」, 『조선지광』, 1930.6.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드러냈다.

첫째, 그는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이 내세운 논리가 김기진의 「변증적 사실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그가 김기진의 대중화 논리를 수용하였다는 심정적 수궁이며, 작품상으로는 「우리 오빠와 화로」가 해당된다. 앞서 발표했던 「담—1927」에서는 과격한 교술적 구호로 독자의 참여를 강권했던데 비해, 이 작품에서는 자기고백적 서간체를 통해 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자극하였다. 이와 같은 선동 방식의 기술적 성숙은 서간체 형식의 본질적 속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훌륭한 일개의 낭만적 개념’을 형상화하는데 적합한 시적 기법을 체득한 데서 유래했다.

둘째, 그는 이때까지 소설 비평의 논리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우리 오빠와 화로」가 적어도 시 부문에서 ‘리얼리티’한 경향을 드러내었다는 점에 긍지를 가졌다. 그의 자긍심은 김기진의 고평뿐만 아니라, 경향각지의 노동현장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평가에 고무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격려와 자긍심에 힘입어 김기진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문제의 시를 발표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은 시의 양식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식인의 허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반성한 요지는 시대의 상황이 암울하여도 ‘네 거리에서 순이를 부르고 꽃구경 다니며 동지’를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서슴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시에 나타난 감상성, 곧 ‘소시민적 흥분’을 타인들이 시비하지 않았던 「네 거리의 순이」까지 아울러서 가리킴으로써, 그들보다 섬세한 비평적 시읽기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 무렵에 임화는 자신이 일본에서 학습한 경험을 체계화하는 중이었다. 그가 자신의 시작품이 ‘소시민층 주로 학생 지식자 청년들의 가슴을 흔들었술지는 모르나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남의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의 이 발언은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 뒤에 나온 것이다. 그가 단편서사시에서 등장시켰던 인물은 ‘프롤레타리아의 생활 감정’을 체득한 노동자/농민이 아닌 일종의 배역을 수행하는 가공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인과 화자의 일치를 지향하는 리얼리즘시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에 없었는데, 그는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계급적 속성이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나이 어린 소녀 화자를 등장시킴으로써, 감상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는 과오를 깨달았던 것이다. 아울러 그는 동료 소장파의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글을 비판하는 이유가 '진정한 노동자적 행동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적 소재를 '진실한 생활상'으로부터 선택하여야 하며, 시인이 일보 전진하는 것은 '노동자 농민의 생활 감정을 자기의 생활 감정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비판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다른 시인에게도 자신의 논리를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일본 체류 중에 학습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이념적 우위를 드러내면서, 프롤레타리아적 생활과 시의 일체화라는 자신의 문학관을 체계화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임화의 개인적 야심이 드러난 글이다. 그는 이 글을 1930년 4월에 동경에서 썼다고 밝혔는데, 자신의 작품에 대해 고평을 한 김기진에게 대항했던 이면에는 개인사적 이유가 있다. 박영희의 물질적 원조를 받았던 그는 이 글을 통하여 박영희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거에 김기진과 동열에 서려고 한 것이다.²⁴⁾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의 시에 대해 비판을 결행할 정도로 무모한 문학적 도박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는 자신의 문학적 야망을 파악한 무산자파들의 총동에 동조함으로써, 이후에 무산자 계열이 중심이 된 문학운동의 불세비키화에 복무할 여지를 마련하였다. 그는 카프 조직의 개편 과정(1930. 4.)에서 권환, 안막 등과 함께 중앙위원으로 보임되어 카프의 불세비키화를 주도하는데, 이로써 무산자파가 논쟁을 전개한 이유와 거기에 동조했던 그의 의도가 드러났다. 그는 카프 조직원이 아닌 무산자파의 일원으로 전술적 차원에서 국내의 카프 조직에 대항했던 것이다.²⁵⁾ 그의 비평적 글쓰기는 결국 무산자파

24) 임화와 김기진, 박영희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90, 91-145쪽 참조.

25) 문학의 대중화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김기진과 임화의 논리적 대결은 그대로 NAPF의 대중화 논쟁을 반복한 것이다. 김기진이 中野重治와 林房雄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비해, 임화는 藏原惟人と 青木壯一郎의 노선을 따랐다. 전자는 후자보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예술성을 강조했으며, 藏原惟人は 中野重治의 주장을 '이상적 관념론'이라고 비판하였다.(박명용, 『한국프롤레타리아문학연구』, 글

가 카프 조직의 접수를 위한 대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위로서의 활동이었다.

이와 같이 임화의 자기비판은 복합적인 성격을 드러낸 글이며, 자신의 작품을 고평한 글에 대한 비평적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최소성을 갖는다. 비평사적으로도 유례없는 그의 반성적 글쓰기는, 한국 근대문학의 현실과 문학인의 처지를 드러내면서 비평적 논의의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글은 단편서사시론을 정리하면서, 리얼리즘 시론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국면을 차지하게 되었다.

5. 맺음말

단편서사시는 전대의 장시화 경향을 하나의 시형으로 정착시키면서, 1930년을 전후하여 점차 악화되는 식민지적 상황을 수용할 만한 현실적 대안으로 출현하였다. 단편서사시는 카프의 문학 대중화론과 불세비키화 과정에 깊이 연루된 양식이므로, 조직 확대를 위한 공산주의 이념의 아지·프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카프는 이 양식을 통해 조직의 재건과 이념의 확산을 시도하였는데, 그 양식적 특성은 서간체 형식과 사전적 요소의 시적 수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편서사시적 특성이 드러난 선구적 작품은 임화의 「젊은 순라의 편지」였다. 그러나 단편서사시 논쟁이 「우리 오빠와 화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작품은 논의의 중심부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단편서사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의들은, 김기진에 대하여 임화를 위시한 무산자파의 조직적 반론에 힘입어 종료되었다. 이 논의는 카프 문학운동의 정치성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일인에 대한 만인의 싸움’의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격인 김기진의 논리가 갖고 있는 긍정적 성격에 대한 카프 소장파의 견해는, 한국 근대 문학비평의 논쟁 방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단편서사시를 둘러싼 논의의 경직화는 카프 조직의 이념 투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임

벗사, 1992, 166-177쪽 참조).

화의 자기비판은 그의 이념적 우위의식과 카프 조직을 접수하기 위한 무산자파의 전위로서의 활동, 비평적 논리의 체계화 및 개인적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글이었다. 이 점에서 카프의 불세비키화는 입화의 자기비판에 힘입은 바 크며, 결국 카프의 조직 와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카프 소장파의 논리적 경직성은 단편서사시의 양식적 탐구에 대한 논의를 봉쇄해버렸고, 비평사적인 측면에서는 논쟁의 탄력성과 깊이에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 이면에는 카프의 조직을 접수하려는 무산자파가 준비한 조직적인 논리가 잠복해 있다. 단편서사시 논쟁이 특정 작품에 국한되었다는 사실은, 그 양식적 논의를 포함하여 시론의 발전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카프의 제2차 방향전환이 단행되면서 단편서사시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현실의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다. 카프의 입장에서는 당면 과제로 대두된 조직의 재건과 해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서사시는 1930년대에 문학 대중화론의 전술적 차원에서 리얼리즘시의 창작 방법의 하나로 널리 수용되었으며, 카프 조직원을 포함한 여러 시인들에게 당대의 모순을 반영하기 위한 시형으로 정착되었다. 초기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담론 방식으로부터 개방적인 담론 방식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평적 논의가 수반되지 못했으나, 이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리얼리즘시의 한 국면을 담당하였다.

참 고 문 헌

- 권 환, 「시평과 시론」, 『대조』 제4호, 1930.6.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김기진, 「단편서사시의 길로」, 『조선문예』, 1929.5.
 김두용,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산자』 제2호, 1929.7.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김용직, 『입화문학연구』, 세계사, 1991.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90.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론고』, 아세아문화사, 1990.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2.
- 박명용, 『한국프로레타리아문학연구』, 글벗사, 1992.
- 신상전 · 웨크베커, A.J. 엮음, 『독일의 정치사』, 제3문학사, 1990.
- 안 막, 「맑스주의 예술비평의 기준」, 『중외일보』, 1930.5.4
-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 윤영천, 「한국 리얼리즘시론의 역사적 전개와 지향」, 『민족문학사연구』제 2호, 1992.
- 임 화, 「시인이여! 일보전진하자!」, 『조선지광』, 1930.6.
- 정효구, 『현대시와 기호학』, 느티나무, 1989.
- 람핑, D.(장영태 옮김), 『서정시: 이론과 역사』, 문학과지성사, 1994.
- 솔즈, R.(유재천 옮김), 『기호학과 해석』, 현대문학사, 1988.
- 야콥슨, R.(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89.
- 웅, W.T.(이기우 ·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 토도로프, T.(최현무 옮김), 『바호젠: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Danpyonsosasi(단편 서사시)'

Choi Myong-Pyo

This study explores the debates related to Danpyonsosasi in the Korean literary circle around 1930. The critics who belongs to the KAPF's camp introduced the style of Danpyonsosasi as a means to popularise literary works to the people. At first, its form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writing a new style of poems and the debate of Danpyonsosasi's form extended because it became a means to take hegemony in literary circle.

The important critics involved were the theorists of KAPF's camp: IM Hwa, Kim ki-jin. As the debates was escalated, many other young critics involved in the debate. And the form and content of Danpyuonsosasi became the main topic in the Korea literary circle of 1930. Ultimately, the debates on Danpyonsosasi stimulated the development of realistic poems and cla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Danpyonsosasi -- narrativity and orality.

I aim to classify and analyze the debates surrounding Danpyonsosasi from the perspective of Kim ki-jin. His opinion is correct and the first work of Danpyonsosasi is not 「uri oppawa hwaro」 but [Dam-1927].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literary dabate was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 improved the literary criticism in Korean literary circle and in effect the realism deepened.